



28일(한국시간)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린 ISU 월드컵 쇼트트랙 4차대회 여자부 1000m 결승전에서 한국의 최민정(성남시청)이 1위로 골인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최민정, 쇼트트랙 1000m 금빛 질주

올 시즌 월드컵 첫 개인전 1위  
남자 계주 5000m 금메달 획득

한국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무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28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도르트레흐트에서 열린 2021-20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41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올 시즌 첫 개인전 금메달이다.

최민정은 지난달 1차 대회 여자 1500m와 500m 결승에서 다른 선수와 충돌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때 무릎과 발목을 다쳐 2차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상을 회복하고 돌아와 이달 3차 대회 1000m에서 은메달로 시동을 건 뒤, 드디어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결승에서 7바퀴를 남기고 5명 중 네 번째로 달린 최민정은 6바퀴를 남기고 아웃코

스를 공략,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다.

3바퀴를 남기고는 김 부탱(캐나다)에게 잠시 선두를 내줬으나 마지막 바퀴에서 다시 인코스로 파고들어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선수 중에는 최민정만 결승전에 나섰다. 김아랑(고양시청)은 준결승 3조에서 5위를 차지해 준결승 진출이 불발됐고, 이유빈(연세대)은 준준결승 1조에서 경기를 하다가 페널티를 받았다.

남자부는 1000m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윤기(고양시청)가 준준결승에서 2조 5위로 탈락했고, 김동욱(스포츠포토)은 준결승 1조 4위로 파이널B에 진출해 1분26초846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녀 1000m 출전권을 국가별 최대치인 3장씩 확보했다. 올림픽 쇼트트랙은 국가별로 개인 종목에 최대 3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다.

베이징올림픽은 네 차례 월드컵 성적 가운데 선수별로 가장 좋은 3개의 성적을 더해 높은 순서대로 남녀 500m와 1000m는 총 32장, 1500m는 36장의 출전권을 국가별로 배분한

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4차 대회 개인전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로 마무리했다.

앞서 여자 1500m에서 이유빈이 금메달을, 남자 1500m에서는 박장혁(스포츠포토)이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단체전에서는 김동욱, 박윤기, 박인욱(대전체육회), 박장혁으로 꾸려진 남자 대표팀이 5000m 계주 금메달을 추가했다.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의 올 시즌 월드컵 첫 계주 금메달이다. 경기 막바지 2위로 달린 한국은 박윤기가 마지막 코너를 돌며 인코스 추월해 극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최민정, 김아랑, 이유빈, 서휘민(고려대) 조가 3위로 결승선을 끊었지만, 터치 과정에서 실수로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다.

혼성 2000m에서는 최민정, 김아랑, 박윤기, 박장혁이 나선 준결승에서 박윤기가 넘어지면서 3위로 밀려 파이널A에 진출하지 못했고, 김동욱, 이유빈, 박인욱(대전체육회), 서휘민으로 멤버를 교체해 출전한 파이널B에서 2위(2분44초534)를 기록했다.

김민기 기자



27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여자 축구 한국과 뉴질랜드의 친선경기에서 임선주가 역전 결승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작은 네모안은 콜린 벨 감독)

연합뉴스

## 韓 여자축구, 오늘 뉴질랜드와 친선A매치 2차전

아시안컵 본선 앞둔 최종 모의고사  
콜린 벨 감독, 속도와 적극성 주문

한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내년 1월 인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본선을 대비한 뉴질랜드와의 친선 경기 2차전을 오늘(30일) 갖는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은 이번 평가전을 통해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고 피지컬과 멘탈 부분을 더욱 개선하려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27일 열린 1차전에서는 한국(18위)이 뉴질랜드(23위)에 전반 한 골을 내준 뒤 상대 자책골과 임선주(현대제철)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역전승했다. 역전승이라는 결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였다.

이날 한국은 초반부터 적극적 진방 압박에 나선 뉴질랜드를 상대로 고전했다. 뉴질랜드 선수들은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한국 선수들을 견제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벨 감독은 “전반 끝나고 선수들에게 경기 템포를 올리고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며 전반 경기력이 아쉬웠음을 인정했다. 임선주도 “전반 뉴질랜드의 거친 플레이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뉴질랜드와의 친선경기는 아시안컵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후 열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을 대

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세계 무대에서는 뉴질랜드보다 더 강한 피지컬과 압박을 보유한 팀을 상대해야 하기에, 미리 대처법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뉴질랜드와의 1차전 후 벨 감독은 선수 개인에게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한 적극성을, 팀 차원에서는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역전극을 써 낸 후반처럼 말이다.

후반에는 전반과 달리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왔다. 지소연의 자신감 넘치는 드리블이 분위기를 바꾸는 단초였고, 교체 멤버로 나선 최유리가 상대 자책골을 이끌어냈다. 이어 후반 35분 조소현이 올린 크로스를 임선주가 헤더로 밀어넣으며 역전했다.

벨 감독은 “전반 끝난 뒤 선수들에게 ‘현재 경기 속도가 느리다. 속도와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후반에 그런 점을 잘 따르고 피지컬적으로도 잘 싸워줘 좋은 경기를 했다. 몇 가지 전술 영상도 보여줬는데 잘 받아들여 줘 고맙다”고 칭찬했다. 이어 “선수들이 본인의 능력을 믿고 후반전뿐만 아닌 한 경기 90분 동안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2차전 역시 1차전 때와 같은 주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벨 감독은 2연전을 통해 최종 명단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아시안컵 본선을 앞둔 최종 모의고사에서 승리라는 결과로 자신감까지 얻어가려 한다. 아시안컵에서 5위 안에 들어가면 2023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진출권을 얻는다.

김민기 기자

## 허훈 맹활약 수원 KT, 인삼공사 꺾고 4연승

승차 0.5경기 단독 1위 지체  
SK, KCC 17점 차 대 역전승

프로농구 수원 kt가 후반에만 20점을 몰아친 ‘에이스’ 허훈을 앞세워 4연승 산바람을 내며 단독 선두를 지켰다.

kt는 28일 경기도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안양 KGC인삼공사와 홈 경기에서 96-80으로 이겼다.

최근 4연승의 kt는 12승 5패를 기록, 이날 전주 KCC를 96-91로 물리친 서울 SK(11승

5패)와 승차를 0.5경기로 유지하며 단독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반면 이날 이겼더라면 이번 시즌 10개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전 구단 상대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인삼공사는 최근 6연승 행진을 중단했다.

인삼공사는 또 이날 kt를 잡았더라면 SK와 함께 공동 1위가 될 수 있었지만 10승 6패로 선두 kt에 1.5경기 차 뒤진 단독 3위에 머물렀다.

허훈의 폭발력이 무서웠다. 경기는 16점 차 kt의 대승으로 끝났지만, 경기 종료 5분 40초 전까지는 77-77 동점이었

을 정도로 두 팀의 힘겨루기가 팽팽했다.

kt는 이때 허훈이 2점 야투와 자유투 2개로 연달아 4점을 넣었고, 인삼공사가 문성근의 자유투 1개로 추격하자 캐디 라렌의 3점 플레이와 양홍석의 속공으로 종료 3분 22초를 남기고는 86-78로 훌쩍 달아났다.

88-80에서 허훈은 자유투 2개를 다 넣어 경기 끝나기 1분 54초 전에는 90-80, 10점 차를 만들었다.

허훈은 이날 전반 8득점으로 잠잠하다가 3, 4쿼터에 10점씩 몰아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kt는 시즌 개막 전 발목을 다쳐 한 경기도 뛰지 못하던 허훈이 복귀한 14일 창원 LG전부터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4전 전승을 거뒀다.

SK와 KCC가 맞붙은 잠실학생체육관에는 2천234명의 관중이 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프로농구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이번 시즌인 지난 21일 서울 삼성과 kt의 잠실 경기에 입장한 1795명이었다.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SK는 3쿼터 초반 38-55, 17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후반에 뒤집고 96-91로 이겼다.

SK에서는 자밀 위니가 역시 3쿼터 13점, 4쿼터 15점 등 후반에만 28점을 넣는 등 혼자 42점, 15리바운드로 필렐 날아 대역전승에 앞장섰다.

7승 9패에 머문 KCC는 울산 현대모비스와 함께 공동 7위가 됐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12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출국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자핸드볼대표팀, 4개국 친선 대회서 3연패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12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치른 4개국 친선 대회를 3연패로 마감했다.

한국은 2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베르겐의 아사네 아레나에서 열린 인테르 스포르츠클럽 4개국 여자 핸드볼 대회 3차전에서 네덜란드에 25-41로 졌다.

러시아(24-34), 노르웨이(23-35)에 이어 네덜란드에도 10골 차 이상 패배를 당한 우리나라는 스페인으로 이동, 12월 1일 개막하는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우리나라는 이날 송혜수(광주도시공사)와 김진이(부산시설공단)가 나란히 5골씩 넣었다.

한국은 2019년에도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국내에서 세르비아, 헝가리, 러시아를 초청해 4개국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3전 전패를 당하고 세계선수권으로 향했다.

당시 세계선수권 조별리그에서는 프랑스, 브라질을 꺾고 덴마크, 독일과 비기는 등 선전을 펼친 바 있다.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은 콩고, 튀니지, 덴마크와 함께 F조에서 경기한다.

이번 4개국 대회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노르웨이, 러시아, 네덜란드가 나란히 2승 1패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28일 서수원철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수원 KT 소년부와 안양 KGC 인삼공사의 경기. 96대80으로 승리한 KT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